

흔들림없는 '필승 카드' 성영탁의 재발견



KIA 성영탁이 지난 21일 열린 KT와의 원정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성영탁 '나오면 자킨다'... 불펜 중심축 '우뚝'

**최고 149km 투심·커터·커브 조합... 돋보인 완급 조절 존재감 각인
중간계투에서 마무리까지 10경기 ERA 0.77... 4경기 연속 무실점**



이제는 성영탁이다. 프로야구 KIA 불펜의 무게추가 그에게 쏠리고 있다. 성영탁은 지난 2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9회와 10회를 책임지며 2이닝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비록 팀은 5-6으로 패했지만, 마운드 위 존재감은 가장 선명했다. 투심 최고 구속은 149km. 커터와 커브를 섞어 타이밍을 흔들었다. 완급 조절과 조합으로 풀러낸 투구였다. 총 25구.

9회부터 만만치 않았다. 첫 타자를 땅볼로 처리했지만 안타를 맞았다. 2루수 뜬공으로 아웃카운트를 늘렸지만 다시 안타를 허용하며 2사 1루 위기에 몰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타자를 3루수 플라

이로 처리하며 이닝을 끊었다. 10회는 더 깔끔했다. 삼진 2개를 결단인 삼자범퇴.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이닝을 마쳤다.

올 시즌 첫 20이닝 소화이자, 한 경기 최다인 8타자를 상대했다.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도 이어갔다.

성영탁은 이날까지 10경기 11%이닝 1자책점, 2세이브 3홀드, 평균자책점 0.77을 기록 중이다. WHIP 0.94, 피안타율 0.222. 지난주 팀의 8연승 과정에도 꾸준한 힘을 보탤었다.

실점도 지난 11일 대전 한화전에서 유일하다. 올 시즌은 구위 상승이 뚜렷하다. 투심 구속이 147km 안팎으로 형성되면서, 최고 149km까지 찍히는 힘이 더해졌다. 커터와 커브를 결단인 승부의 완성도도 높아졌다. 보직이 바뀌어도 투구는 탄탄하다. 어떤 역할

이든 제 몫을 해낸다. 시즌 초반에는 중간계투로 나섰다. 3월28일 SSG전, 4월2일 LG전, 4월7일 삼성전, 4월10일 한화전까지 허리를 맡았다. 이후 9회를 맡기 시작했다.

3월31일 LG전에서 한 차례 마무리를 경험한 뒤, 4월11일 한화전부터 뒷문을 책임졌다. 키움(15-16일), 두산(18일), 그리고 이날 KT전까지 연속 마무리 등판이다.

사실상 마무리 고정이다. 임시를 넘어선 흐름이다. 책임이 커졌지만, 2군으로 내려간 정해영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이 배경에는 지난 시즌이 있다. 성영탁은 2025시즌 45경기 52%이닝에서 평균자책점 1.55를 기록했다. 3승 2패 7홀드. 피홈런은 단 2개, 30탈삼진으로 뛰어난 구위를 유지했다.

짧은 이닝을 확실하게 지우는 능력. 올해는 그 역할이 더 뚜렷해졌다. 팀 연패 속에서도 성영탁의 20이닝은 이를 다 시한 번 확인시켰다.

지금 KIA 불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다. /주홍철 기자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명 참가...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오늘부터 나흘간 열전

생활체육동호인 한마당 축제 김해서 팡파르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대축제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3일부터 26일 까지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린다.

'경남에서 펼쳐지는 감동, 화합의 대축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축전은 전국 17개 시도 2만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행사로, 축구·야구 등 41개 종목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는 화합과 교류의 장이다.

광주는 이번 대회에 검도, 축구, 파크골프 등 31개 종목 700명이 참가한다.

광주선수단 최고령 선수는 소프트테니스에 출전하는 이학재(89세) 선수이며, 최연소 선수는 빙상종목 신유주 양(8세)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체육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가하는 사례도 눈길을 끈다. 국학기공 김필중 박미옥 씨, 육상 최도선·유미선 씨, 스쿼시 안주현·이영란 씨, 철인3종 신영일·마은희 씨는 부부가 함께 참가해 다년간 함께 쌓아온 호흡과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에어로빅 종목에는 백수현·수찬·수아 3남매가 나란히 출전해 가족이 만들어낸 특별한 팀워크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광주선수단은 24일 오후 5시30분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2026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광주', '203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도시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스포츠 도시 광주'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은 36개 종목 1천83명이 참가한다.



지난해 목포에서 열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전남 광주시체육회장이 육상 선수단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위) 개회식에 입장하는 전남선수단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은 당구 종목의 윤병하 선수(88세, 목포)가 최고령 선수로, 롤러 종목에 출전하는 김은후 군(8세, 순천)이 최연소 선수로 참가한다. 또한, 쌍둥이·자매·형제 4쌍과 부부 9쌍이 함께 출전해 가족 단위 참여라는 생활체육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쌍둥이는 태권도 양소원·양정원, 자매는 그라운드골프의 이정순·이사은 김은숙·김연옥, 형제는 롤러의 주은호·주은우이며, 부부는 그라운드골프의 조민현·최영자 박흥기·김은희 조영택·김정순, 배드민턴의 김병훈·우종영 김

본선·신나리, 육상의 양인균·최광임 김동욱·김정영 김영균·최선미 등이다. 육상 김성봉(79세 이하부)·오이순(74세 이하부, 이상 포환던지기) 씨 부부는 각각 2연패와 3연패에 도전한다. 또한, 오만평 전남도체육회 이사도 남자 포환던지기 종목 64세 이하부에서 3연패에 도전해 관심을 모은다. 이와 함께 그라운드골프 단체인(74세 이하)과 배구 남자일반부에서도 3연패 도전에 나선 등 전남 선수단의 경기력과 저력을 한껏 과시할 전망이다. /박희중 기자

전남체고 복싱, 남녀 종합준우승

전국 종합 복싱선수권대회, 김태서·정광진·황보주 올 시즌 2관왕

전남체고가 2026 전국 종합 복싱선수권대회에서 남녀 고등부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체고는 최근 경북 영주생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남고부 금메달 2개, 여고부 금메달 1개·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나란히 종합 2위를 기록했다.

남고부 김태서(-48kg급, 2년)와 정광진(-50kg급, 3년)은 각각 체급 우승을 차지하며 지달 열린 협회장배대회에 이어 올해 2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여고부에서는 황보주(-65kg급, 2년)가 금메

달을 목에 걸며 올 시즌 2관왕을 신고했고, 안아요(-57kg급, 3년)가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밖에 남고부 -80kg급 추도윤(전남기술과 학교 2년)은 금메달, -60kg급 김민재(전남기술과 학교 3년)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남중부에서는 박주현(-52kg급, 보성중 3년, 보성복싱마스터)이 정상에 올랐고, 김도완(-60kg급, 보성중 3년, 보성복싱마스터)은 은메달을 수확했다.

여중부에서는 -46kg급 김재현이 은메달, -60kg급 오현(이상 나주 매성중·손복싱)이 동메



2026 전국 종합 복싱선수권대회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획득한 전남복싱 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달을 차지하며 전남 복싱의 미래 경쟁력을 입증했다. /박희중 기자

빈지노, 크래비티 민희, 최병찬 승리 기원 릴레이 시구

KIA, 롯데3연전 '아이엠프 스튜디오 브랜드 데이'

KIA 타이거즈가 오는 24-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홈경기를 '아이엠프 스튜디오 브랜드 데이'로 치른다.

선수단은 24일과 25일 경기에 지난 시즌 브랜드 데이에 착용했던 스트라이프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하며, 26일 경기에는 서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3연전 동안 특별한 승리 기원 편편 릴레이 시구 이벤트도 진행한다.

24일은 아이엠프 스튜디오의 공동 대표인 빈지노가 시구자로 나선다.

2023년과 2024년 시구자로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올랐던 두 경기에서 모두 승수에 등극한 빈지노는 이번에도 승리의 기운을 선수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빈지노는 "아이엠프 스튜디오 브랜드 데이를 통해 다시 한번 챔피언스 시구를 할 수 있어 뜻깊다. 팬분들과 함께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열기를 나눌 생각에 매우 기대되고 꼭 승전고를 울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5일은 크래비티의 민희가 시구를 맡는다.



왼쪽부터 빈지노, 크래비티 민희, 배우 최병찬 <KIA 타이거즈 제공>

민희는 "작년에 이어 올 시즌에도 시구를 하게 돼 영광이고 구단에 감사드린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만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6일은 배우 최병찬이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른다. 최병찬은 "2년 연속 시구를 하게 돼 매우 기쁘다. 타이거즈의 우승을 위해 올 시즌도 열심히 응원하겠다.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건강히 시즌을 마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광주시체육회 행복나눔교실 bowling 프로그램 <광주시체육회 제공>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로 함께 꿈을 꾸다

광주시체육회 '행복나눔교실' 스타트...14개소 260여명 참가

광주시체육회가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복나눔교실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행복나눔교실 프로그램은 다문화 및 소외계층 가정 초·중·고등학생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해 스포츠 복지 실현과 사회·문화적 갈등 해소를 돕는다.

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등 교육·복지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선발된 200여명의 학생들은 매주 1회에서 4회에 걸쳐 종목별 전문 강습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GPC 생활체육(골프), 대한유소년스포츠교육원·양산초(농구), 동구청소년수련관·송정다누리체

육관(방송댄스), 웰컴볼링센터·K1볼링장(빙신)·광주탑볼링장(볼링), 영주실내빙상장(빙상), 광주체육회관 스쿼시장(스쿼시), 조코치의 수영교실·영주수영장(수영), 동림다목적체육관(탁구), 월곡초·소태풋살장(축구) 등 14개소에서 다양하게 운영된다.

전남시체육회장은 "생활체육의 문턱을 낮추고 다문화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단순한 운동 교육을 넘어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여러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소외되는 계층 없이 평등하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